

조선대, 왓슨앤컴퍼니와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웰에이징 발전 협약

‘Asia No.1 웰에이징 대학’ 실현

조선대학교 (총장 김춘성)가 웰에이징 선도대학을 기치로,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와 ㈜왓슨앤컴퍼니(대표 김은민)는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웰에이징 산업 활성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조선대 본관 정출어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왓슨앤컴퍼니 김은민 대표 등이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기반의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기기 기반 웰에이징 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산학협력 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왓슨앤컴퍼니는 뇌 과학기술을 적용한 소비자용 디바이스를 개발해 소방청, 치매안심센터 등에 공급하



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Asia No.1 웰에이징 대학’ 실현을 비전으로 바이오메디, 에이지테크, 라이프케어 등 고령친화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해, 지역 기업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은 “글로벌대학 지정을 통해 웰에이징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는 물론 베트남, 태국 등으로 진출해 웰에이징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남동 새마을지도자학·부녀회, 삼계탕 나눔



서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기영호)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명자)는 최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동구청 제공〉

광주보훈청,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업 간담회



광주지방보훈청(청장 김석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2일 효율적인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해 전남지역의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광주사랑의열매,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



광주사랑의열매는 23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2026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에는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협회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5년 하반기 배분사업과 2026년 배분 기준 및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배분사업 안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배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2024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 시상식을 시작으로 광주 사랑의열매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조직현 동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의 특강에 이어 2026년 배분사업에 대한 안내 순서로 진행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마담에이즈, 북구 이재민에

5000만원 상당 의류 기탁



〈주마담에이즈(김창숙부띠끄)는 광주사랑의열매에 최근 호우 피해로 큰 피해를 겪은 광주시 북구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의류 802세트를 기탁했다.〉

〈광주사랑의열매 제공〉

동신대·국립목포해양대 인권센터 업무협약



동신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인권센터와 인권 보호 및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 제공〉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5 건강의 재구성 섯록(재)	00 보물지도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플러스큐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여왕의 집 스페셜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2시 뉴스 외전	00 애니갤러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우리 집 금송아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탑클래스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25 연중기획 남도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건강 하우스 광있는 아침(재)	00 SBS 오뉴스 50 고향이 보인다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여왕의 집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시장이 좋다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재)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	00 시사토론 시사광로	00 와 진짜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5 여름특선드라마 디어 엠	40 메리 킷즈 피플 프리미어 55 MBC 뉴스 25	50 지금은 AI 시대, 내가 만드는 AI 세상
[12]	00 KBS 중계식 〈빈 필하모닉 여름밤 콘서트〉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리얼 라이브	40 풀캠남도 스페셜

50: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잼

08:00 당동댕 당동댕

08:50 고고다이스 해양구조대

09:05 메탈카드봇 S 경찰의 귀환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0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록S

16:10 당동댕 당동댕

17:00 페파 피그

17:10 엄마 까투리(재)

17:25 레인보우 버블잼(재)

17:40 타타와 쿠마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PD로그

20:40 세계테마기행

〈국가공인가이드의 꼭! 꼭! 읽어 이탈리아 -저 푸른 초원 위에 토스카나-〉

21:35 한국기행

〈사(史)적인 만남 4부

다산의 고향에서〉

21:55 왔다! 내 손수

22:45 다큐멘터리 K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클래스 e(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 (음 6월 30일 甲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48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길한 것은 적어 보인다. 60년생 일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72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볼 필요가 있느니라. 84년생 준비하다가 하루 해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96년생 고통과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7

丑

37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제가 된다. 49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61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비춰오니 만사여의하리라. 73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대단히 클 것이니라. 85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니라. 97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43, 96

寅

38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거러질 것이 없으리라. 50년생 금에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62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74년생 형상 너머에 있는 바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아쉽다. 86년생 부실들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아. 98년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13, 69

卯

39년생 방심한다면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생길 수 있다. 51년생 가운데에 끼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69년생 초기에 사려 깊은 공을 들여 놓아만 한다. 81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93년생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05년생 거저적거리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9, 84

辰

40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52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64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76년생 시각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상당할 것이니라. 88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00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4, 55

巳

41년생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3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겠다. 65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77년생 활용한다면 편안한 결과를 낳는다. 89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01년생 너무 힘에 겨운 점이 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04, 53

午

42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54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66년생 한번 정해진다면 계속 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78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90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발생한다. 02년생 흔들리지 말고 대연자약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9, 78

未

43년생 높은 산에 올라 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게 된다. 55년생 결정을 내렸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67년생 여중간하여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할 수이다. 79년생 예견되는 대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만 한다. 91년생 오늘 반드시 실행하자. 03년생 조금씩 변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9, 74

申

44년생 아예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접하리라. 68년생 대상을 잘 선정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80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다. 92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04년생 제3의 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2, 88

酉

45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57년생 가운데에 끼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69년생 초기에 사려 깊은 공을 들여 놓아만 한다. 81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93년생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인이 보인다. 05년생 거저적거리기만 하고 소용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9, 84

戌

46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58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하자. 70년생 눈앞에 놓여 있다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82년생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94년생 현상이 보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06년생 헛수고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26, 77

亥

47년생 경험에 비취웠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59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있다. 71년생 외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둔중하게 대처하자. 83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95년생 부딪스러웠던 일의 수고로움을 털어 주는 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07년생 중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1, 82